

간화 선해명~ 수행생 속이 선~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특화 간화선 수련회 현장



차가운 가을비와 바람은 옷 속을 파고 들어와 살을 에는 듯 했다. 설법전 바닥은 얼음장 같이 차갑다. 주말 이른 시각부터 화계사에서 남양주 봉선사까지 달려온 17명의 학생들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봉선사에서 개최한 청소년 특화 간화선프로그램 '나를 찾는 선' 수련회에 참가한 화계사 학생회 소속 청년들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입재식이 시작되자 두꺼운 점퍼 등을 벗고 수련상의로 갈아입고 바른 자세로 삼귀의와 선 언문을 낭독한다.

10월 25일 시작된 1박 2일의 시범 수련회는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지도하에 진행된다.

입재식 후 첫 시간은 포교원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붓다'가 상영됐다. 화계사 학생회에서 참석했지만, 수련회 프로그램이 개선 보급될 때에는 일반 학생들도 체험하기 때문에 흥미 유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른 시간 쏟아지는 졸음에도 애니메이션을 보는 눈들이 툭툭떨린다.

애니메이션 상영 후 점심공양을 거쳐 원철 스님의 선 강연이 시작됐다. 강연은 기초수행법 강습 후 소감문 및 이문 수업, 서원세우기 등을 거쳐, 간화선 알기와 화두들이기 진행됐다.

"선은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끝나고 PC방에 몰래 갔다가 11시 50분에 집에 들어갔어요. 통금시간이 12시이고, PC방 간 것을 부모님한테 딱 걸렸어요. 그때 뭐라 그러죠?"

"잘못했어요."

"그래요. 여자저자 해서 이렇게 저렇게 PC방에 놀러갔고, 12시 10분 전이라고 설명하면 빗자투로 한 대 더 맞을 뿐이죠. 부모님을 봤을 때, 보고 잘못했다고 느낄 때 바로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는 것. 선도 마찬가지로요. 여러 설명보다 자신이 직접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 좌박을 반으로 접고 왼발을 오른발 위로 얹어보세요"

원철 스님의 친절한 강의에 참가 학생들은 잠시 움츠러 들었던 자세를 곧게 하고 좌정에 든다.

화계사 학생회장 김사라(상명고·18)양은 "전반적으로 내용은 어려웠지만, 스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집에서 명상을 하다가 사찰에서 하니 더욱 잡념이 적었다"고 말했다. 서영선(정의여고·15)양도 "어린이 법회 때부터 쪽 해오던 참선이라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 재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미숙 지도교사(45)는 "작년 여름 화계사에서 30명 가량이 참가한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오늘 참석한 아이들은 대부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불교를 공부하고 참선 등을 한 아이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사는 "연합 수련회로 개최하면, 작은 사찰 단위에서 1, 2명씩이라도 참가할 수 있고, 아이들의 참가의욕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포교원측에 주문했다.

보습보습 내리던 비도 어느새 그치고, 기초수행법 강습도 끝이 났다. 저녁공양 직전 참가 청소년들은 1박 2일의 짧지만 긴 수련회를 위해 따뜻한 숙소에서 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했다. 저녁공양 후 일정은 김남선 교사(구암중학교)가 맡았다. 이날날 새벽 3시 30분, 숙소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청하던 시간도 금방 흘러가고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되자 벌써 일어나 나간다.

하루 동안 지도법사를 맡은 원철 스님은 "이번 간화선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수행을 접하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며 "조기교육이 중요하듯 수행도 처음부터 기초를 탄탄히 다져 생활화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수련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먼 훗날 간화선을 수행할 때 지금 기억이 떠오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가 내려 단풍잎을 적시는 가운데, 수능 100일 기도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봉선사의 풍경은 한 폭의 가을동화였다. 비록 적은 수였지만 이날 모인 학생들과 지도자들의 열정은 청소년 간화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송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판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계 · 조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계 · 장엄연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법**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제품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 아이센스·염송경집 1부·염송의법 1부
- 기기크기 : 9.5cm×6cm, 화면크기 : 5cm×4cm, 기기두께 : 0.8cm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대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법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일·한자 전자사전
※영어·일어·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 전국 대리점 모집 : 010-3785-9398

☎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구성

- 아이센스 T-108
염송경집 1부, 염송의법 1부